

< 2023년 교회표어 >

모이기를 힘써 생명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행 2:46-47)

불쌍히 여김의 능력

- 사도신경

- 찬 송 86장

1.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2.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3. 내가 요단 강 건너가며 맘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4.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후렴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 기 도

- 성경본문 마가복음 6장 34절

34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 삶 나누기

나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누구인가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명

우리 모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변화시키는 사명이 있고, 교사는 학생을 변화시키는 사명이 있으며, 목회자는 성도를 변화시키는 사명이 있고, 먼저 믿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을 변화시켜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사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명이 있다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명'일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녀도, 학생도, 성도도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사역에서 그 비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십니다.

바리새인이나 율법교사와는 달리, 예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르치심을 행하셨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에는 능력이 있었던 이유는 그냥 가르치시지 않으시고, 먼저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곧,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불쌍히 여김으로 충만한 가르치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불쌍히 여기사'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창자 혹은 내장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유래하였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은 마음 속 깊이 창자와 내장이 꿈틀거리며 불쌍히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중심으로부터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가 사용된 대표적인 말씀을 보면, 탕자의 비유(눅 15:20),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눅 10:33~34), 나인성 과부의 아들 살리시는 기적 사건(눅 7:13) 등입니다. 이 본문들의 공통적인 현상은 불쌍히 여기니 사람이 변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불쌍히 여기는 능력'이었고, '불쌍히 여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원천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교회

'자신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많은 사람들은 '엄마'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머니는 불쌍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라는 단어 속에 불쌍히 여김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새문안교회를 한국의 어머니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렇기에 새문안교회의 정체성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단어가 '불쌍히 여김'일 것입니다. 새문안교회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교회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조선 사람을 불쌍히 여겨 이 땅에 오게 됐고, 처음 시작하신 사역은 고아원이었습니다. 언더우드 학당, 오늘의 경신학교는 고아원에서 시작된 학교였고, 불쌍히 여김으로 가르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교육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목욕이었습니다. 고아의 몸을 씻기는 것은 어떤 가르침보다도 중요한 교육이었습니다. 언더우드 학당과 정동여학당, 연희전문학교, 새문안교회는 불쌍히 여김의 열매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더불어 깊어져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불쌍히 여김'일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성숙의 가장 중요한 척도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에'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불쌍히 여김은 실천으로 이어져야 함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기셨더라'로 끝나면 그것은 진짜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순서를 보게 됩니다. 먼저 불쌍히 여기고 그 다음에 사역이 있는 것입니다. 선(先) 불쌍히 여김, 후(後) 사역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역을 하고 효과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겼기에 능력 있는 사역이 가능했고, 지속적인 사역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불쌍히 여김으로 나아가는 세 가지 자세

그렇다면 어떻게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까?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자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숫자를 보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셨고, 영혼을 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둘째는 그 사람의 진실을 볼 때 불쌍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리들의 외모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진실을 보니 목자 없는 양 같은 모습을 보시게 되었고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셋째는 인격적으로 만날 때 불쌍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만날 때, 곧 3인칭이 아니라 2인칭의 관계를 맺게 되면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결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깊이만큼 변화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얼마나 불쌍히 여김을 받은 존재인지를 다시금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일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인데 왜 백 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 삶의 최종목표는 어떤 지위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불쌍히 여김의 능력으로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말씀 나눔

1.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원천을 무엇이라고 설명하나요?(2쪽 하단 밑줄)
2.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며 행동으로 실천한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세요. 또한 내가 지금 불쌍히 여기고 있는/여길 대상은 누구이며 어떻게 다가가려 하는지 나눠주세요.
3. 그 외에 이번 공과가 주는 은혜, 위로, 격려, 혹은 도전이 있다면 나눠주시고 기도로 마무리합니다.